

출퇴근만 3시간...광주 新택지지구 “대중교통 불편 더는 못 참겠다”

인구 급증 수완·첨단지구
 시내버스 소외 심화
 내년도 개선 난망 '분통'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김인복(47)씨는 금남로까지 시내버스로 출근하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 직통 노선은 '수완 12번' 단 한대로, 북구 운암동을 지나 서구 화정동, 남구 백운동 등 광주지역 5개 구를 모두 경유하는 탓에 중간에 갈아타는 버스 환승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김씨는 “주차문제 등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중인데, 출퇴근을 하는 데 3시간 넘게 소모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가 광산구 수완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외면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완동은 최근 주민등록상 인구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동 단위로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지만, 대중교통 소외는 심각한 수준이다. 시는 내년 예산에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완 1·2동, 첨단 1·2동 등 신도심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선 연장이나 신설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운행중인 시내버스타지 급행간선과 간선, 지선간 연계가 제대로 안돼 주 운송

수단으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수완·첨단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38만3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한 광산구의 버스노선은 37개로, 1개 노선을 이용하는 평균 인구수만 1만400여명에 이른다. 반면 동구는 인구 10만8000여명에 노선수는 53개로, 노선당 인구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광산구가 대중교통의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광산지역 내에서도 대중교통 소외 현상은 심각하다. 광산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첨단 1·2동~수완~신창~신가~운남~우산~송정동을 경유하는 노선은 첨단 40번 버스가 유일하다. 같은 광산구인 첨단에서 송정역을 가는데도 시내버스로 최소 1시간19분이 소요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 152건 중 노선 관련 민원 77%(117건)나 차지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에도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중인 광주시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당분간 노선 확대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1개 노선을 운영하는 데 최소 버스 10대가 투입되고 운영비도 연간 20억원 안팎이 들어가는 만큼 열악한 재정상 노선 확대는 힘들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승객 운임수익 등이 빠진 순수 운영비로, 이른바 '황금노선'을 구축한다면 운영비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노선 확대 계획은 없다”면서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주민 재산권 등과 밀접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위 몰고온 퇴근길 눈발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 5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는 등 추운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출 늘고 소비 살아나 광주·전남 경기 풀리나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의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 가을호에 따르면 호남권의 지난해 11월 인원이 77%(117건)나 차지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에도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중인 광주시는 예산난 등을 이유로 당분간 노선 확대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1개 노선을 운영하는 데 최소 버스 10대가 투입되고 운영비도 연간 20억원 안팎이 들어가는 만큼 열악한 재정상 노선 확대는 힘들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승객 운임수익 등이 빠진 순수 운영비로, 이른바 '황금노선'을 구축한다면 운영비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완 1·2동, 첨단 1·2동 등 신도심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선 연장이나 신설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운행중인 시내버스타지 급행간선과 간선, 지선간 연계가 제대로 안돼 주 운송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자금사정은 3·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세 연구인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전세 수요가 일부 주택매매 수요로 전환돼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했지만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지속하고 있다. 주택산업의 동향은 자동차(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 마무리 및 휴일 특근 재개로 조업이 정상화된 데다 신차 출시, 수출 호조 등으로 생산이 크게 늘었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철강산업은 지난 8월 화재로 피해를 본 일부 업체(광양 제철소)의 생산시설 복구 등으로 생산이 늘었고, 조선산업은 그동안 부진했던 벌크(bulk)선 및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 증가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0)에서 2~3 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은 계절적 비수기에 대응한 대규모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판촉행사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반도체 주도 제조업 생산도 증가 3·4분기 완만한 개선

그러나 건설투자는 미분양물량 증가와 공공부문의 SOC 발주량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호남권 경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 시장국 성장세 둔화, 원화강세, 기업자금 사정, 정방의 8·28 전월세 대책 등이 꼽혔다.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원화 강세는 자동차 등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품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자금사정은 3·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세 연구인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전세 수요가 일부 주택매매 수요로 전환돼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했지만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지속하고 있다. 주택산업의 동향은 자동차(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 마무리 및 휴일 특근 재개로 조업이 정상화된 데다 신차 출시, 수출 호조 등으로 생산이 크게 늘었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철강산업은 지난 8월 화재로 피해를 본 일부 업체(광양 제철소)의 생산시설 복구 등으로 생산이 늘었고, 조선산업은 그동안 부진했던 벌크(bulk)선 및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 증가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미분양물량 증가와 공공부문의 SOC 발주량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호남권 경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 시장국 성장세 둔화, 원화강세, 기업자금 사정, 정방의 8·28 전월세 대책 등이 꼽혔다.

그러나 품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전남대 의예 529·영어교육 506점 광주과기원 515·광주교대 503점

지역대학 예상 합격선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인기 학과인 전남대 의예과는 529.6점, 수학교육과는 496.5점을 받아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교대는 503점, 광주과학기술원은 515.8점이 예상 합격선이다. <관련기사 7면>

27일 광주·전남지역 고교 진학교사와 서울 주요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한돌대학입시전형연구회'(회장 한철민·송덕고 교사)가 지난해 전국 응시자 15만명의 대학별 입시 자료와 26일 발표한 수능 성적을 대비해 분석한 결과다.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전남대는 인문계 470점(표준점수 800점 만점) 이상, 자연계는 440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인기학과의 경우 490점은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어교육과 506.3점, 국어교육과 500.6점, 유아교육과 489.8점, 교육학과 487.2점 등이다. 또 행정학부는 501.6점, 경영학부는 496.2점, 경제학부 494.5점, 심리학과 494.4점은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의예과가 529.6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의예과 500.1점,

수학교육과 496.5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뽑은 광주과학기술원은 515.8점으로 예상됐다.

교육대의 경우는 광주교육대 503.0점, 경인교대 510.6점, 부산교대 504.6점, 전주교대 503.2점 등으로 예상됐다. 조선대는 영어 A·B형을 모두 선택이 가능, 변수가 커짐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최상위권대학 인기학과는 530점대 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서울대 경영대학 540.8점·사회과학 540.2점, 연세대 경영학과 539.3점, 고려대 경영대 539.3점 등이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의예과 542.5점·수리과학부 533.4점, 연세대 의예과 540.9점, 고려대 의과대 538.8점 등이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해당 대학·학과에 합격한 수험생 100명 가운데 85명(85%선)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점수(원점수 400점 만점)를 기준으로, 지원가능 점수를 추정한 것이다.

한철민 회장은 “대학별로 표준점수·백분위 등 반영 방식이 다르고, 영어B형의 경우 가산점도 있어 수험생들은 예상 합격점수를 입시전략을 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The New S-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New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BlueTEC 2,987cc, 2,09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6.9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5g/km * S 350 BlueTEC L 2,987cc, 2,1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3.0km/ℓ(도시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4g/km * S 500 L 4,663cc, 2,170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12g/km * S 500 4MATIC L 4,663cc, 2,255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26g/km * S 63AMG 4MATIC L 5,461cc, 2,215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복합연비 7.3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9.4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246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